



2024
Better Energy for
Us & Earth





대한민국의 자원영토를 넓혀나간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고,
미래 에너지를 발굴하는 **KNOC**



KNOC 2024

미션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비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핵심가치



전략방향 & 과제



광개토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전략지역 자원
확보

석유 위기대응
최적화



비축·유통
공공기능
강화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 적기 추진

에너지·유통
서비스 강화



경영성과 극대화 및
재무 건전화

기술 및 디지털 혁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선도

안전·환경 경영
고도화

투명·윤리경영
강화



2년 연속 당기순이익 달성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공동비축 계약 체결



베트남 15-1광구 4억 배럴 달성



Dana 북해 Earn 구조에서 가스 발견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확장을 위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





석유개발사업

사업진행

16 개국 **32** 개 사업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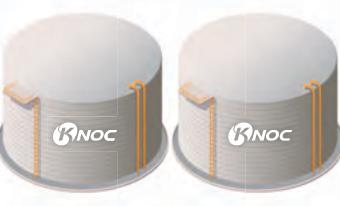
955 백만 배럴

일일생산량

136 천 배럴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비축,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범한 공공기관입니다.

석유비축사업



비축기지
전국 **9** 개

비축시설 용량
146
백만 배럴

비축유 확보
97
백만 배럴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



알뜰주유소

1,286 개

석유정보 서비스

오피넷 이용자
(유가정보 서비스)

페트로넷 이용자
(종합석유정보망)

2 억 명 / 연

84 만 명 / 연

신에너지 사업



CCS 사업

국내 최초 대규모 CCS 실증사업 추진,
국내외 대규모 CCS 저장소 확보



수소 · 암모니아 사업

해외 생산 참여, 국내 유통 인프라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풍력단지 조성 및 발전사업 추진



○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석유 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히고, 에너지 주권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광개토 프로젝트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유·가스전을 찾고, 해저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 대륙붕 종합 탐사계획, ‘광개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에서 10년간 물리탐사 1만 7천km²와 탐사시추 24공을 실시하는 ‘광개토 프로젝트’는 최근 동해와 남해를 대상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4,270km² 지역에 대한 3D 탄성파 자료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대륙붕 해저 자원 정보를 구축, 1조 입방피트 규모(동해 가스전 4배)이상의 유·가스전을 발견하여 에너지 안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CCS 저장소도 확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속적인 석유개발을 통해
국가 자주개발률 양상 및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55 백만 배럴
매장량

 136 천 배럴
일일생산량

※ 공사 지분 몫(2023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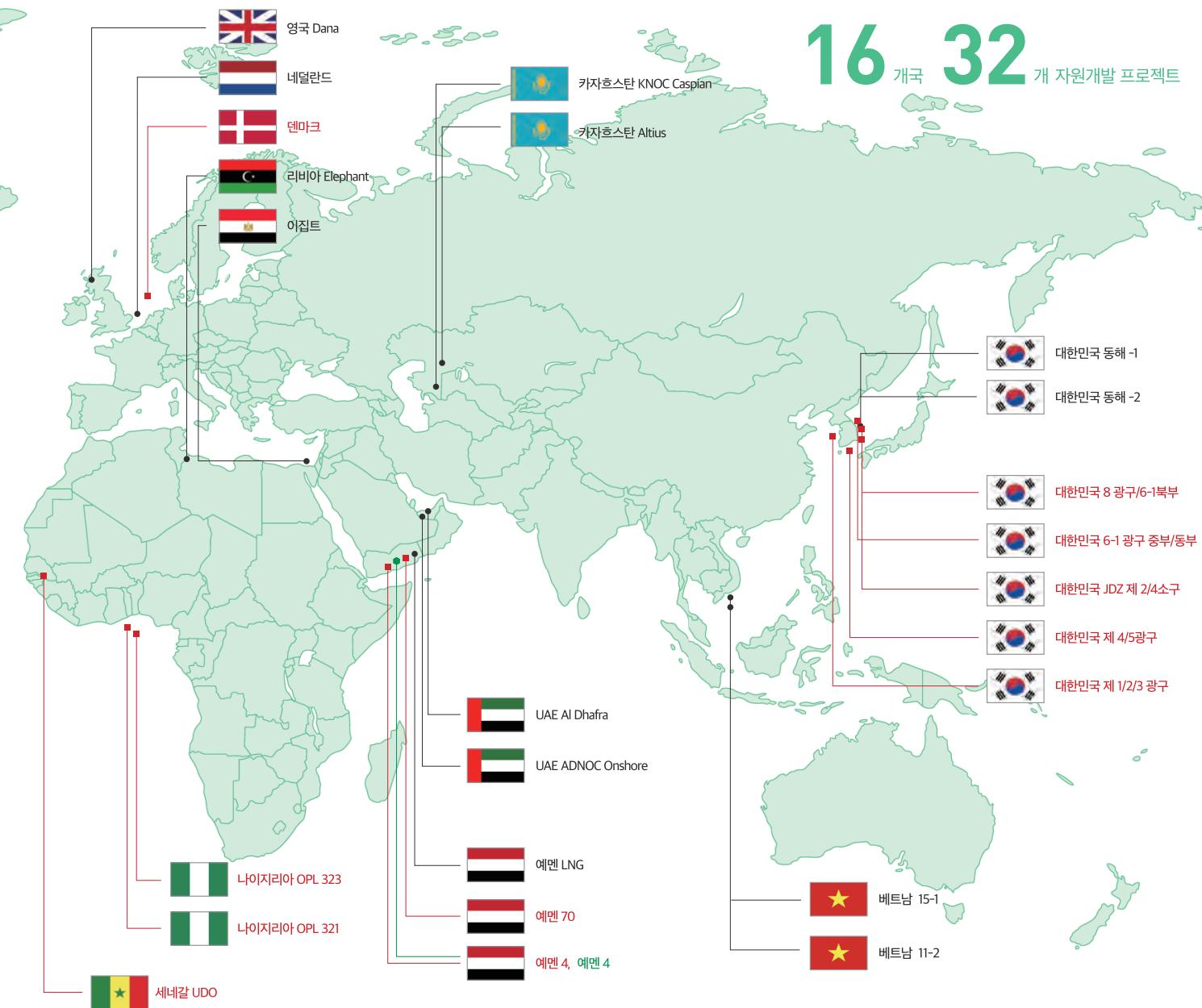


국내대륙붕개발

한국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동해·심해·서해·남해까지 포함하여 국내 자원확보를 위한 유망구조 평가는 물론 CCS 대규모 저장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1 중부·동부광구 조광권을 획득하여 2021년 방어구조 탐사시추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에 2024년 말 목표로 탐사정 1공 시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전개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0여 년간 확보한 석유개발 분야의 탐사, 개발, 생산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15개국에서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사는 수년간의 탐사성공과 해외 자산 인수를 통해 매장량 및 생산량을 확대하고, 중동·북미·유럽·중앙아시아 등의 거점을 확보하여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해왔으며, 국제 인지도를 제고하여 메이저지역 진출 및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 베트남 15-1광구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Dana社 툴마운트가스전의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UAE 할리바유전 인근을 추가 개발하여 일일 생산량을 높였습니다.



영국 Dana

한국석유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영국 Dana 사업은 영국 북해를 주로 하여 네덜란드, 덴마크, 이집트 총 4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arn구조에서 탐사시추를 성공하여 양질의 가스 저류층을 발견하였으며, 2022년 툴마운트 가스전 생산 개시 등으로 현재 일산 약 3만 5천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 만 5 천 배럴 생산

UAE Al Dhafra

한국석유공사-GS에너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ADNOC과 아부다비 육상광구(Area 1)를 대상으로,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rea1 내 할리바유전 및 인근 구조의 추가 개발로 현재 일산 약 4만 2천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 이후 현재까지 투자대비 약 152%의 회수율을 보이며, 2023년에는 원유누적생산 4억 배럴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4 만 2 천 배럴 생산

베트남 15-1

한국석유공사의 기술인력이 초기 탐사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유망성을 평가해 4개 구조의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에 기여한 결과 현재 일산 약 4만 5천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 이후 현재까지 투자대비 약 152%의 회수율을 보이며, 2023년에는 원유누적생산 4억 배럴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4 만 5 천 배럴 생산
누적 생산량 4 억 배럴 달성



1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비축유 보유로
국가 석유수급안정과
위기대응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석유비축

한국석유공사는 위기 시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국가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제4차 정부의 석유 비축계획에 따라 1억 4천 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에 9천 7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유사 등의 수급 불안요인 발생 시 적기에 비축유와 비축시설을 지원하여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2011년 리비아사태 당시 비축유를 방출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 동맹국 공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고유가와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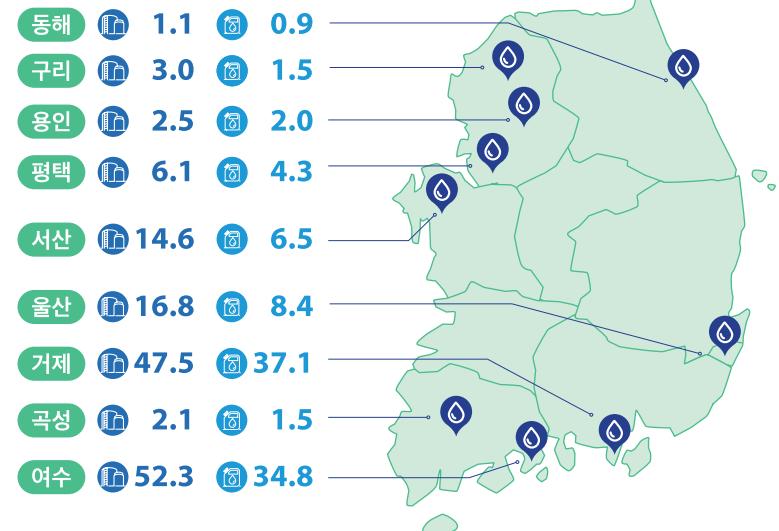
146
백만 배럴



97
백만 배럴

※ 2023년 말 기준

비축유 보유 현황도



시설용량 비축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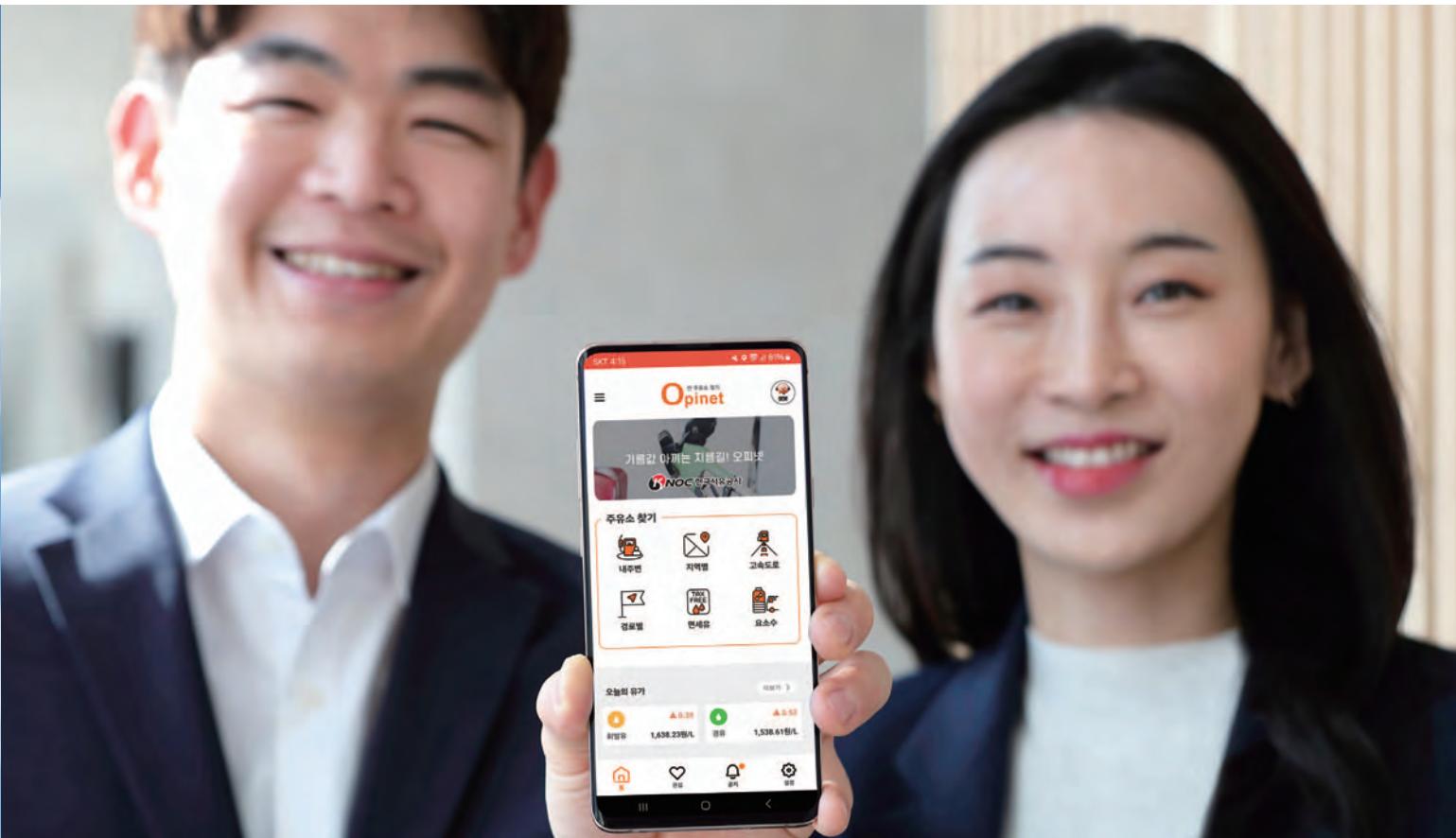
※ 2023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배럴)

석유트레이딩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자산을 활용한 석유트레이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석유시장의 가격변동성을 활용해 원유, 석유제품, LPG 트레이딩 거래를 실시하고, 그 수익을 비축유 자체증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축시설의 여유공간을 활용해 산유국 등의 물량을 유치, 저장하여 저장 수익을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국내 석유수급 차질 시 국내 정유사 등 민간 기업에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적기 지원하는 비축자산 대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내 정유사 유종 소비변화에 부합하는 비축유종 확보를 위한 유종교체를 실시하여, 비축유종 최적화를 도모하고 수급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동북아 에너지허브

한국석유공사는 우리나라를 오일, 가스 관련 물류 및 금융 거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818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운영 중이며, 울산에서는 총 440만 배럴 규모의 상업적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북항사업은 2024년 3월 상업적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남항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신규 사업방향성 및 사업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며, 에너지허브가 조성되면 석유 및 액화가스 연관 산업의 발전과 수급 안정화, 트레이딩, 물류서비스, 금융 등 신산업 유치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뜰주유소

국내 석유유통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국내 석유시장 가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싼 주유소는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저기주유소 가격 할인과 알뜰유 공급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비싼 주유소는 비싸게 팔지 않도록' 고가 주유소 가격 할증과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변화되는 국내 유통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수소 및 전기충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주요 도시 알뜰주유소 확대, 복합 충전 사업진출 및 연관 사업 다각화 등으로 안정적 사업 수행 및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유 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석유정책 수립 및 시행은 물론 학계의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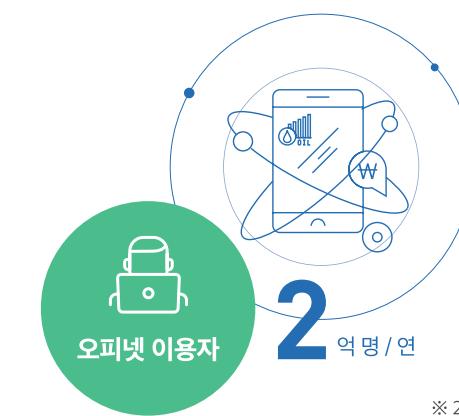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일평균 약 55만 명이 이용하는 실시간 국내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운영하여 국민 생활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 정보를 오피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소수의 재고 유무 및 단가 공개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2023년 오피넷 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opinet.co.kr



1,286 개소



※ 2023년 말 기준

종합석유정보망 페트로넷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유일의 종합 석유정보망인 페트로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넷은 국내외 유가, 국내 석유수급 통계 및 동향정보, 석유개발 현황, 석유시장 분석보고서 등을 국민, 정부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여 정부의 석유정책 수립, 학계의 연구,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www.pro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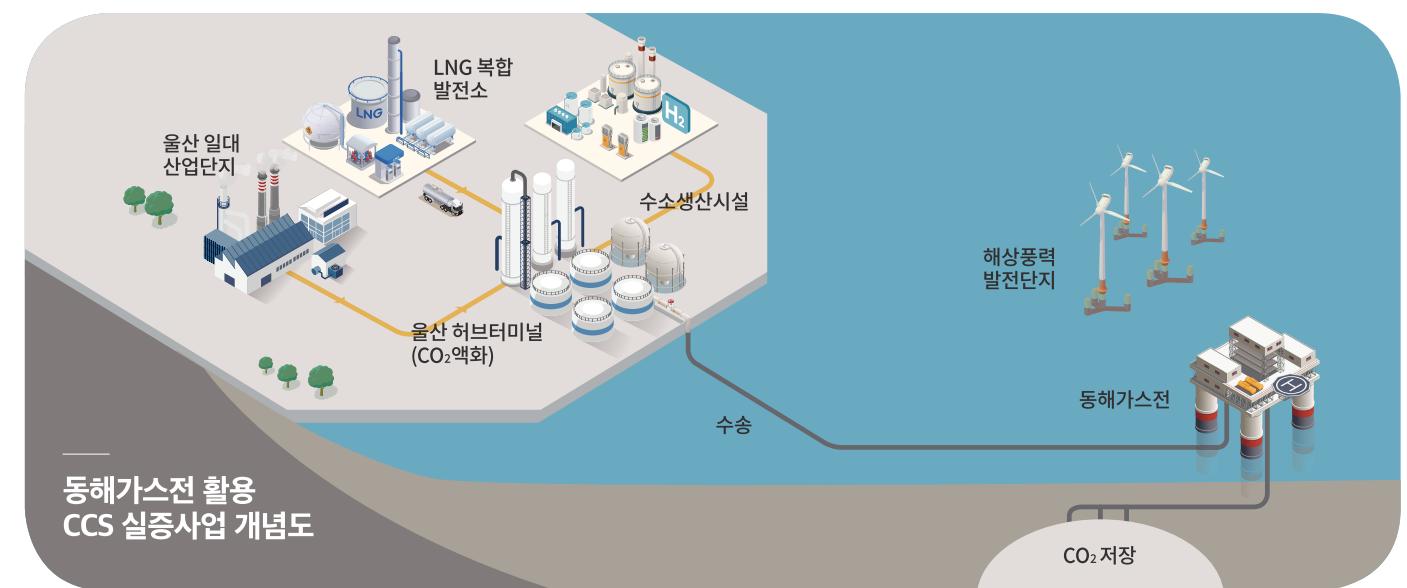
CCS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개발 및 비축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으로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최초 대규모 CCS 실증사업

한국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가진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약 40년간 국내외 석유가스전 탐사·개발·생산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국내 대륙붕탐사 경험, 동해가스전 운영 경험을 활용해 국내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저장소를 발굴하고, 주입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과 확장,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사업인 CCS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하여 연간 12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증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년 480만톤 감축)달성을 기여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CCS 상용화를 위해 한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공사는 CCS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저장용량 평가, CO₂ 주입 시 압력상승 등에 따른 저장층 및 덮개암층의 파쇄로 인한 CO₂ 누출 등에 대한 주입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CCS 사업 추진 계획

2022	2023	2024	2025~2027	2028	2030
저장소 평가	연구개발	시설설계	시설구축	주입개시 (120만톤)	사업확장 및 저장소 확보 (480만톤)



국내외 대규모 CCS 저장소 확보 및 산업생태계 조성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대규모 추가 저장소 확보를 위해 제2동해가스전을 발굴하고 자원안보 및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대륙붕 중장기 탐사 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CO₂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베트남 등 국영석유사 및 민간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저장소 확보와 국경통과, CCS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소·암모니아 사업 Value Chain



수소·암모니아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청정 수소 도입의 주된 수단인 암모니아의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서해, 동해, 남해 3개 지역에서 암모니아 인수·저장·유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인근 석탄발전소에 청정 암모니아를 공급하고,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건설하여 인근 LNG 발전소 및 산업단지에 수소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암모니아의 안정적 거점 및 도입처 확보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중동, 북미, 호주, 동남아 지역에서의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청정수소발전 계획에 맞춰 2027~2028년부터 연료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암모니아와 수소의 생산, 도입, 비축, 유통 사업을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수소 중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유일한 가스생산시설을 국내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설로 전환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풍황계측장비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당해 11월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27년까지 2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후 2028년부터 전력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26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변전소로 활용해 경제적, 환경적인 부가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국내 일자리 창출에 더하여, 국내 관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해상풍력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계획

2023	2024~2026	2027
기본설계 착수 FEED	인프라 건설 EPC	암모니아 인수기지 운영

• 2027년 연간 100만 톤 유통규모 • 2030년 연간 400만 톤 유통규모 • 2036년까지 연간 1,000만 톤 유통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계획

2021.5	2021.11	2024	2025~2027	2028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발전사업 허가심의 통과	SPC 출자, 인허가 및 기본설계 개시	기자재 구매 / 제작 / 설치공사 / 시운전	전력생산

*200MW : 발전용량



○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

한국석유공사는 CEO의 안전경영 철학인, '안전은 가치'라는 인식의 내재화를 바탕으로 능동적 안전문화인 Active Caring* 실천과 안전점검 생활 습관화 Safety Talk* 시행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노력 등으로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였으며, 공정안전 관리(PSM*)제도 역시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ctive Caring

구성원 상호간 안전문화 확산 정착을 도모하는 안전문화 내재화 행동 모델

*Safety Talk

근무시작 전 근로환경의 잠재된 안전이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활동

*PSM(공정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안전 관리상태를 P(우수), S(양호), M+(보통), M-(미흡)등급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국민안전사회 실현

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증가 등에 대한 재난안전 예방체계를 확립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등급', 국가핵심 기반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비축기지의 드론테러 대응을 위하여 기지 특성에 적합한 최신기술 안티드론 방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소기업 PSM안전관리 컨설팅 및 동해가스전 백서 등 발간을 통해 공사의 안전·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경영

한국석유공사는 사업장의 환경리스크 관리 강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 친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심사를 통해 환경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공사의 환경성과 경영 공시 등 대국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를 12년 연속 달성하고 있으며,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친환경 저탄소(Green Life, Save Earth) 캠페인, 동해비축기지 Net Zero 달성을 연계한 'KNOC 드림 햇빛 에너지 사업' 등 탄소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 · 보건 · 환경(SHE) 경영방침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친환경 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깨끗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보건 환경(이하 "SHE")
경영을 추구하며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1 "안전은 가치"라는 인식의 내재화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Zero달성을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2 SHE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최적의 SHE 경영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3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 활동을 강화한다.
- 4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 5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 및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나와 내 동료의 안전을 책임지는 성숙된 안전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안전·보건 경영을 공고히 하고 더 나은 안전을 확보한다.
- 6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친환경·저탄소 신사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세계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nergy Welfare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기업이라는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에너지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상생 나눔 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외 이웃에게 휴서기에는 냉방용품 제공, 휴한기 알뜰주유소 등을 통한 난방용 등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지사 지역 주민에게 LED등 무상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co Society

한국석유공사는 'G9' KNOC플로깅을 통한 전사적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집수리봉사활동), 사업장 인근 지역 숲 조성,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국내 지사 인근 마을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Dream Future

한국석유공사는 장애 청소년 진로직업훈련, 지역 취약계층 대상 공사 사이버연수원 및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 및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With Global Family

한국석유공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체육교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생계보조비 및 장학금 지원, 공사 해외 법인 현지직원과 국내 다문화 가정 간 소통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한국석유공사는 '국민과 구성원에 신뢰받는 윤리적인 KNOC'를 비전으로 삼아 준법, 반부패, 청렴 등 포괄적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최초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경영진의 청렴리더십 활동과 사례중심, 고위험분야 맞춤, 참여형 교육으로 윤리의식을 확산하였으며, 하위직급의 청렴체감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각 부서별 윤리인권담당관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윤리문화가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앞으로도 윤리준법 자율 준수 경영체계 구축과 이해충돌방지제도 기반 구축 등 준법·윤리경영 전략을 정비하여 청렴도와 투명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인권경영

한국석유공사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공기업'을 비전으로 삼고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권경영체계 실효성 확보, 인권 보호조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상담센터 및 신고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경영진 및 전직원 교육, MZ세대 간담회, 전직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를 통한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공사 내에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KNOC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우정동)
T 052-216-2114 F 052-216-5900



www.knoc.co.kr



blog.naver.com/knoc3



youtube.com/knocpr

